



남원 온누리신협·공동체지원센터, 활성화 업무협약

온누리신협(이사장 박근규)은 지난 12일 온누리신협 본점에서 남원시 공동체지원센터(센터장 이규용)와 지역공동체 활성화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이날 협약에서 양 기관은 시민주도형 공동체활성화 사업을 구상하고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우수 공동체를 지원하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이날 발대식을 시작으로 ▲공동체 활성화 및 사회적 경제 지원을 위한 제반 사항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우수 공동체 발굴 ▲기타 상호 협의사항 등에 대해 협력하기로 했다.

오종근 온누리신협 전무는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에서 지역 공동체 지원센터 협약을 통해 시민이 조금이라도 마음의 위안을 얻고 공동체 활동을 함께해 행복한 미래를 만들고 싶다”며 “2021년 우수 공동체를 발굴해 공동체 어부바상을 시상하는 등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임실 성수면 행복보장협, 맞춤형 물품 지원

성수면 행복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최정규, 심관섭)가 최근 관내 독거노인 및 장애인 등 취약계층 50가구에 건강한 여름나기 위한 맞춤형 후원 물품을 전달해 진간한 감동을 주고 있다.

협의체 위원들은 취약계층 가구를 직접 방문해 주거환경 및 생활실태를 확인 후 각 가정에 필요한 물품을 파악해 개인별 맞춤형 물품인 선풍기, 전자레인지, 생필품 등을 구입하여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시간을 가졌다.

최정규 성수면장은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열악한 환경에 있는 소외계층을 직접 방문해 건강 상태와 생활실태를 확인하고, 도움을 드릴 수 있어 더욱 의미가 있었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 대상 '강호동의 1박2일-통일여행' 수상

민주평통 전북지역회의, 2021 평화통일 UCC 공모전 '통일패밀리가 떴다' 시상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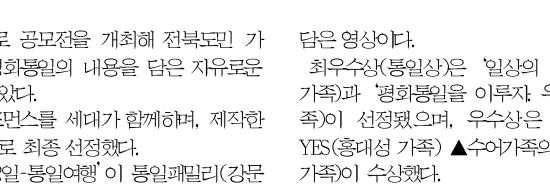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전북지역회의(부의장 홍종식)는 지난 13일 전북도청 종회의실에서 '2021 평화통일 UCC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전북지역회의는 지난 6월 한 달 동안 여성위원회(위원장 방세영) 주관하여

'전쟁은 NO, 내가 평화를 끌어온다'를 주제로 공모전을 개최해 전북도민 가족들이 일상에서의 평화통일의 내용을 담은 자유로운 형식의 영상을 접수받았다.

그 결과 다양한 퍼포먼스를 세대가 함께하며, 제작한 영상 12편을 수상작으로 최종 선정했다.

이날 '강호동의 1박2일-통일여행'이 통일패밀리(강문



원 가족)로 대상(평화상)을 수상했다.

강호동의 1박2일-통일여행은 순창에서 3대가 함께 살고 있는 호동아네 가족이 전쟁의 아픔을 이야기 나누며 평화의 소중함을 느끼고 통일 이후 평양으로 1박 2일 여행을 떠나고 싶다는 가족들의 염원을 담은 영상이다.

최우수상(통일상)은 '일상의 평화를 말하다(박선희 가족)과 '평화통일을 이루자 우리는 하나'(이정현 가족)이 선정됐으며, 우수상은 ▲전쟁은 NO, 평화는 YES(홍대성 가족) ▲수어가족의 평화를 위하여(이다경 가족)이 수상했다. /유호상 기자



인후3동 새마을지도자협, 광복절 태극기 달기 캠페인

제76주년 광복절을 맞아 지난 12일 인후3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회장 황승일)는 회원 20여명과 함께 신설동의 위업을 기리고 광복절 태극기 물결을 조성하시는 취지의 '나라 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을 추진했다.

이날 회원들은 태극기 달기 운동 활성화를 위해 인후3동 태극기 모범거리인 구총목로, 무삼지로 등 3km 구간에서 주민들에게 국가개방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주민들에게 태극기 게양방법, 보관 및 폐기방법 등을 알리고, 직접 태극기를 게양하여 오염·훼손된 국가기 게양되지 않도록 확인 작업을 실시했다.

황승일 새마을협의회장은 “제76주년 광복절을 맞아 국권회복을 경축하고 태극기를 통한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여 지역주민들이 다시 한번 그날의 역사를 되새길 수 있도록 태극기 달기 운동을 적극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 무주군 적상면, 맞춤형복지팀·지사보협 섬김의 봉사 펼쳐

무주군 적상면 맞춤형복지팀·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적상면지사협)가 코로나19 장기화, 연이은 폭염으로 지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섬김의 봉사를 펼쳐 호평을 듣고 있다.

특히 적상면은 지사협과 함께 여름철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는 생활습관 안내 등 적극 물불행정을 펼치고 있다. 적상면지사협에서는 최근 취약 어르신들에게 닦 10마리리를 전달하고 막바지 폭염을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보탰다.

무더위가 지속되면서 쿨토시, 쿨스카프 등 온열 예방용품 지원, 폭염 속 취약계층의 정서 피로를 위한 생활상 상담, 기초 건강 상태(혈압, 당 등)을 꼼꼼하게 살피고



있다. 성도마을 오 모(77세) 어르신은 “코로나19로 자녀들도 오지 못하고 계속된 폭염으로 몸과 마음이 지쳐 있었는데, 면에서 아들을 대신 해서 건강을챙겨주니 힘이 난다.”고 말하며 기뻐했다.

백승훈 적상면장은 “적상면에서는 무더위 속 건강취약계층에 대해 지속적인 전화안부, 가정방문, 건강서비스 등을 진행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중심으로 민·관 연계활동을 강화해 독거 어르신들과 위기 가정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전북보훈지청, 전주서울보청기 청각센터와 협약 체결

전북동부보훈지청(지청장 이운심)은 제76주년 광복절을 맞아 지난 12일 전주서울보청기청각센터(원장 이상선)와 보훈가족 난청예방사업의 일환으로 '보훈가족 행복소리나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전주서울보청기 청각센터 이상선 원장은 대한민국인후과정식 청각사로, 어려운 환경의 난청인을 위한 보청기나눔 사업을 꾸준히 실천해왔다. 이번 전북동부보훈지청과의 행보소리나눔 업무협약을 통해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에 대한 무료 청력검사 및 생계 곤란 보훈가족 무료 보청기 지원, 난청예방교육 등 보훈가족 복지증진을 위해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전북동부보훈지청 이운심 지청장은 “난청으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 국가유공자들이 행복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줘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전주서울보청기 청각센터를 방문하는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은 맞춤보청기 구매 시 할인, 무료 청력검사, 기존 사용하고 있는 보청기 관리 및 무상점검을 받을 수 있다.

/김윤상 기자

##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

